

# 전통 담은 강진청자축제 봄의 서막 알린다



21일 개막…10일간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미술 결합한 체험 풍성…어린이 프로그램도

강진군이 올해도 천년 전통을 담고 있는 고려청자의 매력을 선사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제54회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1973년 시작된 강진청자축제는 거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서막을 알리는 강진군의 대표 축제로,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서 열리는 한 해의 첫 축제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청자와 미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청자와 미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청자 물레 성형 체험, 청자 색칠놀이, 샌딩아트, 청자 마그컵 만들기, 청자 도판 체험 등 '흙'

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에어바운스 키즈존을 비롯해 미술 포토 아트, 선캐쳐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술 키즈존, 청자 입체 퍼즐·디풀·샌드아트·오락실 체험 등이 준비된 놀이터 키즈존 등 3종의 키즈존과 전국 어린이 민화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헬로 카봇(22일), 신비아파트(28일) 등 인기 어린이 브랜드 뮤지컬 공연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전통의 맥을 잇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와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는 강진청자축제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청자골 불명캠프와 화목소원 태우기 등 '불'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1일 오후 6시에는 축제장 주무대에서 화려한 개막 공연이 펼쳐진다. 트로트 가수 김수찬, 미스김, 서지오를 비롯해 '현역가왕' 최수호, '미스터롯2' 진 안성훈이 출연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를 날인 22일에는 '미스터롯3' 선 손빈아와 함께하는 강진노래가요제 우리동네스타가 개최된다.

이 밖에도 청자골 족욕 체험, 강진 가족사진

관, 자전거 숨사탕 만들기, 청자 도판 체험, 청자 굿즈 및 유등 전시, 청자 무게 맞추기, 웃음 참기 대회 등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축제 기간 동안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정책과 연계해 관광객들의 민족도를 높인다. 타지역 관광객은 여행 경비 중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편한 사전 신청과 사후 정산 절차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반값여행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진군 군수는 "강진청자축제는 강진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대표 축제다"며 "청자의 전통과 창의적인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를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함께 특별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숙 기자 sa433225@gwangnam.co.kr

## 광양, 국·도비 건의사업 준비체계 가동

스타트업파크 구축 등 164건 2617억 규모

광양시는 최근 '2027년 국·도비 건의사업 및 2026년 공모·시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과 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건의사업과 정부 공모·시상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도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은 총 164건 2617억원 규모(총사업비 2조7449억원)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45건 262억원, 계속사업은 119건 2355억원이다.

2026년 공모·시상사업은 총 87건 886억원 규모로, 이중 공모사업 53건 876억원, 시상사업 34건 1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로 건의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타트업파크 구축(총사업비 287억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면향로 준설(총사업비 4057억원, 정책건의), 광양항 북극항로 구축 사업 실증사업(총사업비 450억원, 정책건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 분원 유치(총사업비 100억원,

정책건의), 스마트항만 MRO 인력 양성 교육센터(총사업비 287억원, 정책건의), 국립 특수화물 컨테이너 R&D 센터 구축(총사업비 250억원, 정책건의), 사용후 배터리 소재 전극 적층전환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총사업비 300억원), 광양시 용강, 구산 등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총사업비 486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모·시상사업 분야에서는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사업(총사업비 133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우리동네살리기사업(총사업비 83억원), 지역산업 및 출장 일자리지원사업(총사업비 81억원) 등이 응모 예정 사업으로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DX)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 중점 분야의 예산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도비 건의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kjin@gwangnam.co.kr



담양 봉산딸기, 새해 첫 수출 담양군은 최근 2026년 새해 첫 수출을 일리는 담양 봉산딸기의 상차식이 진행됐다. 한류 열풍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봉산딸기영농조합은 딸기수출통합조직(K-베리)과 협력해 미국, 홍콩, 싱가포르와 연간 30t의 딸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딸기 품종은 '금실'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으며 장기간 보관 시에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사진제공=담양군

## 함평,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5.1%…군민 신뢰도 긍정

### 14개 사업 미완료…임기 내 마무리 행정력 집중

민선 8기 함평군의 공약 이행률이 95% 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의회실에서 '함평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사실상 마무리 점검을 실시했다.

회의에는 공약이행평가단 위원과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59개 공약사업 전반에 대

한 노동자 숙소 균열별 설치, 함평만 해안 개관적으로 점검하고 결산하는 의미 있는 도로·경관 조성, 함평읍 기각사거리 주변 자리였다"며 "대부분의 공약이 충실히 이 침수 예방사업, 농공단지 내 기숙사·복합 행된 만큼 군민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 비 지원 확대,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확대 등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핵심이었던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된 것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 역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훈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